

연중 제33주일

평신도의 날

기도서 473면 (C해)

제1독서: 말라 3, 19-20a

제2독서: 데살후 3, 7-12

복음: 루가 21, 5-19

숲정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교구청
☎ 0041 · 0042 · 0043



위대한 선구자들의 후예

양상열

오늘 우리는 새로운 평신도주일을 맞는다, 매년 이 날을 정해놓고 기념하는 데는 그러할 만한 까닭이 있기 마련일 것이다, 온갖 어려움과 회생을 무릅쓰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훌륭한 신자들에게 고마움과 축복을 함께 생각하자는 뜻도 있을 것이고, 하느님 백성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평신도의 존재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의도도 없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평신도 자신의 입장에서 무엇이든 다른 의의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없어서는 안될 교회의 지체라는 우리 평신도가 과연 평신도로서의 제 구실과 제 몫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 도대체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성직자나 수도자와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는 것인지나 옳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반성하고 되새겨 보자는 것이 평신도주일의 취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의 평신도는 세계에 자랑하는 위대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200년 전 우리 조상 평신자들은 외국 선교사를 알지 못한 채 스스로의 힘으로 한국 교회를 세웠고 수세대에 걸친 박해 속에서 평신도들의 장엄한 순교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 위대한 역사야말로 우리에게 높은 긍지와 행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조상의 위대성을 잘 간직해 가는 자손들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을 함께 주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개인 구명만을 지향하는 이기적 개인주의가 평신도사회에 만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것이다.

주일미사만으로 신자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자족하는 주일신자를 비롯하여 전례와 교리에 밝아서 입으로만 사랑과 일치로 보이는 현대판 바리사이파신자, 언제나 사간이 없고 바빠서 단장이나 위월직을 맡지 못하는 봉사사절형의 신자, 미사가 끝나자마자 아예 누구를 만날새라 꿈무늬를 빼버리는 자칭 수사형 신자들이 범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기적인 속물(俗物)신자들이 있는 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요 이들 자신도 구원의 은총에서 멀어질 것이다.

평신도는 교회의 주인이다. 때로는 신부님과 수녀님 앞에 서서 교회를 끌고 나가야 한다. 평신도는 이분들과는 달리 세속에 섞여 살면서 세속가운데 제신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고 또한 세속이 필요로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위대한 평신도 선구자들의 후예다움에, 위대한 교회역사의 전승자다움에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새로운 결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교구 평협회장)



먼저 친교의 공동체를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다. 한국 천주교회가 평신도 주일을 맞는 것도 어느덧 16년째가 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선물하기는 하지만, 이는 실로 놀라운 변화요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평신도 주일을 맞으며 기쁨에 들떠 있기 보다는 조용한 내성(內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걸어야 할 먼 내일을 위해서다.

200년 전 이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순교자의 피를 마시고 오늘의 한국 천주교회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년 역사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다. 아직도 이 땅에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불살라 제물로 바친 순교 선조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앞서기에, 우리는 더욱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교회는 친교(親交)의 공동체요, 봉사(奉仕)의 공동체이며 복음을 증거(證據)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러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몫을 얼마나 다하고 있는가? 사명을 다한다고 혼연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현실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우리 처지를 겸손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와 이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제일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은 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장(場)이 되게 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비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만날 때, 우리의 교회는 바로 친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친일전도 버리고, 내가 최고라는 망상도 떨쳐 버려라. 마음으로 만나자. 그리고 자신의 부족과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자. 이 자세가 참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고, 또 이 모습에 끌려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 늘게 될 것이다.

숲정이 산책



튼튼하게
기름시다

□ 위령성월 ②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진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러다가 상황이 절박해지면 우리는 당황하게 된다. 사실 죽는다는 것은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에 어긋나는 것으로 “왜 나는 죽어야 하는가” 하고 한탄하게까지 한다. 그리하여 이 질문은 해를 거듭하더라도 우리 마음 속에 언제나 도사릴 것이다. 결국 우리 각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죽음 앞에 하나의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많은 사람은 말한다. 산 이의 죽음은 체념해야 할 생물학적 운명이라고. 모든 생명은 그 안에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그들이 죽인 생물로만 산다. 양은 산 풀을 뜯어먹고 사람은 양을 잡아먹지 않는다. 모든 생물은 태어나고 또 죽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생명은 공간의 연속성을 지니면서 지속된다. 생명을 체념해야 하는 것은 우주의 법이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소리가 그것과 반대의 것을 긍정하고 체념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 인간은 죽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 안에는 짐승보다 더 위대한 그 무엇이 있어서 죽음 앞에서 저항한다. 인류 발전의 큰 부분의 하나는 죽음과 그 원인을 거스른 완강한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전염병, 기아, 교통사고에 우리는 팔짱을 끼고 체념할 수는 없다. 죽음 앞에서의 이 저항은 때로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그 태도가 고통 속에서 주장될 때 하나의 감동적인 소리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많은 고귀한 죽음을 본다. 진리를 위해, 정의를 위해, 사랑을 위해 몸 바친 분들의 죽음이 바로 그렇다. 삶과 죽음을 뜻대로 할 힘이 우리 인간에게 없기에 창조주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야말로 죽음 앞에 선 우리에게 참된 해답을 전해준다. 죽음은 바로 우리의 생애를 완성시키는 본질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희망이 없는 자처럼 울지 말라”라고 성 바오로는 말했다. 이 말은 죽음 앞에서 있는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 죽음은 체념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 앞에서 각자 최고의 도범이며 세상을 구하기 위해 죽은 예수와의 가장 결정적인 일치이며 이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길이다. 신뢰에 넘친 희망! 믿는 이의 태도는 죽음을 넘어서실 수 있는 힘을 내포하고 있다. 하느님은 사랑이요 생명이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죽음은 두려움과 체념이 되고 만다. 인생의 끝이요, 절망이 되고만다. 인생을 즐기려고 애를 쓰지만 모든 것은 덧없이 지나고 만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생각해 보자. 이 위령성월에. 과연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떤 쪽을 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자회를 마치고

박 데 레 사

성전 건립을 향한 작은 노력의 하나로 업자들과 교우들이 모두 심혈을 쏟았던 중앙성당 신축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에서 느꼈던 작은 체험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본당 내의 봉사자들은 가정을 가진 주부들로서 모두 살림살이에 바쁜 틈을 쪼개어 작은 봉사나마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모두 열성적이었습니다. 판매금이 많이 올라야 신축기금이 많이 모일 수 있기에 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팔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 없는 일장에 놓이고 보니 참 세상엔 이런일도 있구나 하는 놀라움에 가슴이 뭉개 뒀었습니다. 원래 봉사자들은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야겠지만 그날의 판매금이 없어지지 않도록 돈상자를 잘 지켜야 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업자와 바자회 주최측과 약속이 되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장사를 했던 아줌마는 내게 아예 돈상자를 만지지도 못하게 할뿐 아니라 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난처한 입장에 처해진 나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싸움을 할 수도 없어 무거운 발걸음과 뛰는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사방은 어둠으로 깔려있고 가끔 차들의 불빛이 처참한 나의 모습을 비추며 지나갔습니다. 물론 이 사회 안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깊이 깔려 있기는 하지만 그 정화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성스런 성전 마당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우통을 당하고 보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매일수룩 신자로서의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기도를 친히 정성들여 열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간곡히 청하면서 그를 용서해줄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작은 희생과 노력으로 성전의 벽돌이 하나하나 올라갈 것을 생각하니 의외로 멍 들었던 가슴은 쉽게 풀리고 흐뭇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받은 모욕을 잊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용서로써 이 사회에 상호 신뢰의 터전이 마련될 것을 희망하며 예수님의 희생에 나의 작은 희생을 합친다면 이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앙 성당)

방송안내 : 많은 분의 애청을 바랍니다.
CBS 대행진 : 매일 오후 2시~3시

- 11월 11일(금) 성 태수 신부님
- 18일(금) 박 정일 주교님
- 25일(금) 김 영신 신부님
- 12월 2일(금) 문 정현 신부님

매 금요일마다 신부님의 말씀이 방송됩니다.
성가를 들으며 : 매일 저녁 10시~20분(일요일 제외)
이리 기독교 방송국(1314KHz)

전 일 관 광

☎ 6-6666~8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절기 특설

코 오 롱 맨☆스타

전 주 특 약 점
(호 성 맨 하 단)

▲ 국민카드·신용카드 가맹점
전주시 중앙동 3가 26(중앙동 풍년제과 앞)
전화 ⑧ 8415 김 돈 중(아트리아노)

생활성서 보급소 홍보국에 설치

우리 교회는 20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변화들이
육하고 있으나 교회 간행물의 보급은 극히 저조
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번 교구 홍보국에서는 교회 간행물의 보급 필요성을 느끼고 우선 일차적으로
생활성서 월간지 보급소를 홍보국 내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12월호부터 실시하게 될 생활성서 보급은 현재 생활성서를 구독하는 교구 내 모
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생활성서 보급에 관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당에서 단체로 구입하실 경우나 개인적으로 정기 구독하실 경우 홍보
국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물론 성 바오로 서원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간행물의 보급을 위하여 여러 신부님, 수녀님, 교우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국 올림—

□ 83년 전국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 개최

한국 가톨릭 농민회는 농민들이 피땀흘려 거두어 들인 농산물을 하느님께 바치고, 농
민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농민 입장을 천명하여 앞으로 농민이 나아갈 진로를 밝히는
83년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 11월 16일 오후 1시~5시 장소 : 대전 성남동 천주교회
제1부—추수 감사 미사, 제2부—농민의 소리, 제3부—잔치와 다짐

□ 지체 장애자를 위한 모임 안내

고통 속에서도 맑게 살아왔던 우리들이 마련했던 지난 번의 첫 모임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졌기에 다시 그 두 번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번 모임에서는 우리들 스스
로가 생각한 바를 좀더 폭넓고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만남의 자리가 뜻깊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석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모
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11월 20일 오후 2시 장소 : 센타 교육관 1층
주제 : 우리의 왕이시며 또한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① 미사 봉헌 및 강의—지 정환 신부님(벨기인)
② 대화의 시간
참가대상 : 교파를 초월한 모든 장애인 및 이 모임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
장애자 대표 윤 인상(시몬), 박 찬국(요한), 강 경숙(가타리나) 올림

□ 모시는 글

김제 전주교회 신암공소 축성식

일 시 : 1983년 11월 13일 오후 3시
주 제 : 박 정일(미카엘) 주교님
장 소 : 전북 김제군 용지면 용암리 신암공소

주임신부 오 현 택(가시미로)
사도회장 김 치 덕(바오로)
공소회장 남 경 우(모이세)

요심이 (536) 김병오



재즈 크라식



상당수준의 교착본(체르니, 쏘나타) 소화자에게 악보없을 시도 반주해 낼 수 있는 재미 크라식 반주법의 희소식

피아노 반주법

전화 ④ 3770

이일규(알로이시오)

※ 구 역전과 전교중간 사거리 전북은행 노충동지점 앞

삼덕상회

전주 남부시장 G동75호
주 : 은 요 한
최 아 네 스
주단, 포목, 이불, 목화솜
전화 : 2-4344·6-5356

겨울 난방용 기름 석유·경유

전주 풍전석유

보일러주입용 탱크차 대기
전주 ☎ 2-8745
한 베드로(상철)

한국제과

선물용 케일, 빵 타과류 일 절
☎ ②6589 ②2176
유 영 문(가에따노)
김 민 주(가타리나)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4
(자동차 보험회사 앞)

※ 각종 가방 제조원

☆선물용·행사용·개업용☆
주산가방·유치원가방

고주파 시설 완비
노트표지·메뉴표·통장케스

전주PR사 ⑥ 0901

전주 서서학동(장승백이)
이 진 국(다마스)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축! 견진-복자 성당(21일)

1. 참사회: 15일 오전 10시30분
 2. 사목 방문: 16일-해바라기 농장, 17일-가톨릭 센터
 3. 장애자 릴레모임: 20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센터
 4. 제4지구 중·고등 학생대회: 27일 오전 9시~오후 4시30분, 장소-해성고 체육관
대상-전주지구 각 분당 중·고등학생
 5. 11월중 꼬미씨울 회의: 20일 오후 2시, 전동성당 회의실, 대상-각 푸리아 간부 및 직속Pr 간부 전원
- ☐ 축! 영명: 성 알베르도(15일)-오 기운 신부님

(중암)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정철인
사도 회장	김인협

1. 금암성당 상량식: 25일 어머니미사 (본당미사 없음)
 2. 청년성가대 성탄연습: 11월 9일~12월 23일 (33일간)
토·일요일 제외한 매일 저녁 7시30분부터
 3. 차주 독서담당: 우리 즐거움의 연유 브레시대움
 4. 푸리아: 오후 2시
 5. 독주기도 100만단 바치기: 584,856단 봉헌
 6. 성전 신축헌금 납입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희정(2만원), 김용희·김순영·이인순(각 1만원)
이진의(216,000원)
 7. 송광선 자선음악회: (성전신축 위한) 12월초 예정
 8. 성전신축 위한 바자회에 협조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자회 이익금: 4,248,600원
- ☐ 지난주 봉헌금: 721,362원 교무금: 1,114,000원
새성당 주일금: 81,660원 감사헌금: 김승주(안드레아), 김광주(말렐로), 김영주(알벨도) 각 1만원

(노송동)

신부 ⑥9699 주·사 ⑥7032

주임 신부	김용태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이홍재

1. 위령성월 특별강연회: 19일 오후 7시30분 (오후 7시 미사), 이인복 교수께서 죽음에 관하여 강연하십시오
 2. 연도대회: 26일 오후 2시~27일까지
각 단체 및 구역별로 출전신청을 23일까지 해주세요
 3. 건축 설계위원회: 오늘 공식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
 4. 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팀의 간부님들 참석)
 5. 중·고생 성가연습: 매일 오후 7시
 6. 왕정리공소 축성: 12일 오전 10시30분, 주교님 집전
 7. 아파트 신자들의 신학교육: 매주 오전 10시
 8. 병자방문: 환자를 모신 가정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 ☐ 지난주 봉헌금: 393,120원 교무금: 431,000원
아파트 봉헌금: 103,670원 아파트 교무금: 25,000원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정양현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 모임: L.M. 푸리아 모임-2시, 교육관
 2. 성탄 판공 예고(안내)
①일정: 11월 21일~12월 16일까지(4주간)
21일~25일(금암동 전신자), 28일~12월 2일(덕진 1~9반 신자), 12월 5일~9일(덕진 10~18반 신자), 12월~14일(송천동 신자), 15일~16일(팔복동 신자)
②면담: 20세이상 성인은 본당신부의 면접을 필하고 성사에 입할, 면담시간-매주 월~금요일밤 7시30분 (합동 면접)후 84년 축일표·달력 드림(세대당 1매)
③고백성사: 해당 주 평일 저녁미사(7시) 전후 30분
④성사표: 면담후 배부함
⑤학생들(20세 이하): 12월 10일·17일 오후 4시~6시 성사 ⑥공소: 별도 통고후 실시할 것임
 3. 성모회·반석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결혼을 축하합니다
20일 12시30분, 남승환(마르코)·이민자(세시리아)
26일 12시, 최동규(치루스)·황미림(미카엘라)
27일 12시30분, 김진배(마지아)·최윤희
- ☐ 지난주 봉헌금: 465,180원 교무금: 578,500원

(복자)

전화 ⑥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1. 축! 견진: 오늘 공식미사, 160명, 주례-주교님
2.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3. 평신도주일 특별헌금
4. 84년도 사업계획서: 사도회 각분과 20일까지 제출
5. 주일학교 미사: 오늘 없음

6. 미사시간 변경: 새벽 6시, 저녁 7시, 14일부터 실시
 7. 수녀원 신축헌금: 임종율-10만원, 최종철-5만원, 성남권-2만원, 이길용-1만3백원, 장육근·이명순·김경순·김명순·김관례·이락희·이베드로·김아가·이명-각 5천원, 누계-6,540,800원
 8. 빈첸시오의 집 3주년 기념행사: 13일 오후 4시
시상식 및 자축전-한 L.M.단원 참석 바람
 9. 금주전례: 해설-황만규, 독서-①조성호 ②정운주
차주전례: 해설-이명례, 독서-①이갑진 ②은희영
- ☐ 지난주 봉헌금: 500,830원

(서학동)

전화 ⑥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가정방문: 9반-15일, 10반-16일, 11반-18일
 2. 반장님 릴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푸리아 모임: 오늘 오후 2시
 4. 성심회 모임: 오늘 오후 3시30분
 5. 할머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울뜨레아: 15일 저녁미사 후(7시30분)
 7. 차주전례: 독서-①김낙균 ②박형식
- ☐ 지난주 봉헌금: 270,630원 교무금: 356,000원

(송정리)

전화 ⑥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⑥9567 사도 회장 김수길

1. 사도회 분과 전체회의·푸리아: 오늘 공식미사 후
 2. 구역모임: 15일-어은골(19:30), 17일-서신1구(19:30), 18일-진북2동4구(14:00)·서신2구(19:30)
 3. 오늘 제16회 평신도 날입니다-11월을 83년도 교무금 완납의 달로 정했습니다. 판공 전까지 완납 바람
 4. 금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박해근·이귀례
기도-김영채·김정봉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노재두·박병열
기도-이은자·황현도
- ☐ 지난주 봉헌금: 162,040원 교무금: 517,60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열
전화 사무 ⑥3222 보좌 신부 박찬길
수녀 ⑥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자모회·장우회: 공식미사 후
 2. 성마리아 푸리아: 오늘 오후 2시
 3. 성화회·꼬미씨울: 다음주
 4. 주일 저녁미사 시간변경: 7시
 5. 21일 저녁미사: 대입학력고사 수험생을 위한 미사 (대학생 환영)
 6. 중·고 쉼지도자 및 교리교사 모집: 성서연구 매주함
 7. 가정방문 일정: 동교동·서교동-15일~18일, 풍남동·남노송동-22~25일, 경원동·중앙동·기타-29일~12월 2일
 8. 주일학교 교리교사 및 도서 기증하실 분 모집
 9.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박중규,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서정우, 독서-①안득수 ②백중홍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최종만 ②이훈
- ☐ 지난주 봉헌금: 583,060원 교무금: 763,000원

(파티마)

신부 ⑥0915 주임신부 김명일
수녀 ⑥4804 사도회장 황희상

1. 사도회 확대회: 오늘 오후 2시
가. 전체가 유치원에 모여 설명을 들음(2시~30분)
나. 각분과별 토의(지정된 장소)(2시30분~3시30분)
다. 중한 토의(유치원에서)(3시30분~4시30분)
 2. 견진자들 사무실에 신청하십시오
 3. 금년도 교무금: 미납하신 분 12월까지 완납바랍니다
 4. 가을판공: 두현리-30일, 돌곶지-12월 7일
각 공소 교무금 미납자들에 판공시까지 완납을 바람
- ☐ 지난주 봉헌금: 236,540원 교무금: 179,000원